백제의 왕궁터로 알려진 익산시 왕궁리에 위치한 5층석탑.

백제역사 유적지구 2015년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북·충남도·익산시 등재추진위 첫 이사회

전북도와 충남도, 익산시가 오는 2015년을 목표로 백제역사 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사장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은 지난 31일 대전 문화재청 인근에 통합사무국을 정식 개소하고, 문화재청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정식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통합 사무국은 각 자치단체별로 직원파견 및 재산출연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 등재신청 작업에 착수했다.

개소 후 처음 열린 이번 이사회에는 전북과 충남 양도의 행정부지사와 익산시 유기상 부시장을 비롯한 3개 시·군 부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추진단 사무국장의 성원보고와 선임직 이사로 선임된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종합 기본계획(로드맵)과 추진위원장 선임자 승인, 사무국 운영의 제반사항 등 5개 심의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등재를 목표로 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등재유산 선정과 백제 역사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통합 사무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내년부터 등재신청서 작성과 2014년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제출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벼 애멸구 확산 방제 비상

줄무늬잎마름병 옮겨 심각한 피해
道농기원 대량채집…초기방제 당부

'줄무늬잎마름병'을 매개하는 벼 애멸구가 서해안지역 등지에서 대량으로 채집돼 철저한 방제가 요구된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물론 전북도 공중 포충망에도 중국에서 날아온 애멸구가 대량으로 채집돼 모내기가 이뤄진 논은 물론 육묘 중인 벼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애멸구는 벼에 직접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벼 에이즈'라고도 알려진 '벼 줄무늬잎마름병'을 옮겨 심각한 피해를 준다.

초기에는 잎에 황화 증상과 줄무늬가 생기고 심하면 벼가 말라죽고 이삭이 기형으로 나온다.

중국에서 애멸구가 많이 날아온 지난 2007년, 2009년에 부안·김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대량 발생했다.

농업기술원은 초기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줄무늬잎마름병'이 확산할 수 있어 지속적인 예찰과 애멸구가 많으면 적용 약제를 이용해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방하려면 이앙 전 육묘상 처리제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논에서 애멸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유제·수화제 등 방제전용 약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벼 줄무늬잎마름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을 옮기는 애멸구를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훈몽재서 전통예절 배워요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초당이다.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에 위치한 훈몽재(訓蒙齋)가 전국 중·고교 수학 여행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훈몽재는 조선 중기 학자인 하서 김인후(1510~1560)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내장산 관광호텔 재판 이달중 종결

정읍상의 신속 재판 건의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 온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 재판이 이달말께 종결될 전망이다.

정읍 상공회의소(회장 김인권)는 최근 정읍 경제계를 대표해 내장산 관광호텔의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정읍 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관광호텔 새 소유자가 리모델링후 재개장하려고 추진 중에 파산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업체와 소유주간에 유치권 등으로 소송 중에 있어 공사가 수년 째 중단되고 관광호텔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실정" 이라며 "관광호텔이 새롭게 단장돼 정읍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이 편안히 쉬고갈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 '피담보 채권부존 재확인' 등의 재판을 17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1일 관결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민 60% 이상 새만금권 통합 반대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권(김제·군산·부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대다수 김제시민들이 통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김제 청년회의소(회장 나양욱)에 따르면 최근 서울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김제 지역 19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과 66.2%가 통합에 반대했다.

통합반대 이유로는 ▲지역발전 저해(40.8%) ▲흡수통합 우려(24.7%) ▲지역갈등초래(20.4%) ▲ 생활불편초래(14.1%)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기업+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

청년 200여명 우수 기업체와 첫 만남

전북도와 전북 테크노파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기업+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전북도가 일하기 좋은 15개의 우수기업을 선정한 후 특성화 고교생, 대학생 등 300여명을 모집해 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청년들은 우수 기업체와 첫 만남을 갖고 취업에 어려움을 털어놓는 등 희망이음 행사를 했다.

행사장에는 학생, 멘토, 기업인 등이 참석해 취업토크, 취업특강, 우수기업선정패 증정 등이 있었다.

취업토크 멘토로 나선 김완주 지사와 전북대 서거석 총장, 대우전자부품㈜ 서준교 대표 등은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가 없어 외지로 나가는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가신청은 이달 중순까지 홈페이지(hopelink.kr)에서 받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군산시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운영

군산시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시청 재난관리과 소속 공무원 5명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전담 TF팀은 6월부터 8월 말까지 은파 호수공원 등 관내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정보수집, 유관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상황유지, 비상근무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재난안전 네트워크, 지역 자율방재단,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063-450-4753)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시 농기센터 고구마 막걸리 특허 출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는 지난해 개발한 '고구마 막걸리'와 '고구마 냉면'을 특허 출원했다.

센터는 막걸리와 냉면의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구마 막걸리'는 고구마의 효능과 함께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며, '고구마 냉면'은 현재 서울, 익산 냉면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시 기금운용 우수 행안부 표창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기금 성과분석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3개 그룹으로 나눠 3년마다 1회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성과분석 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해 실시됐다.

남원시는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8개단체에 해당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경찰서 탈북주민 정착 간담회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최근 친서민 치안정책 일환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협력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김한주(신세계병원장) 위원장은 "관내거주 북한 이탈주민들이 건전한 김제시민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의료·취업·교육 등 상담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서장은 "탈북자들이 타향에 와서 조기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고창군 드림스타트 센터 장관상 수상

고창군 드림스타트 센터가 2011년도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센터는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철저한 사례관리와 후원기관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강수 군수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